

WEEKLY REPORT

KMI북방물류리포트

VOL.139AUGUST 7 2020

발간년월 2020년 8월 7일 (통권 제139호) **주소**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**발행인** 장영태 **총괄** 이주호 **감수** 최재선 **담당** 김엄지/김지영 **발행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 **자료문의**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**TEL** +82-51-797-4776 **FAX**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러 페르보마이스키 항만, 온습도 센서 부착한 '냉'컨 최초 처리
-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0일 만에 컨테이너 철송 완료
- -2020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으로 입항한 선박 수 증가
- 러시아 캄차카 주. 신규 수산단지 개발방안 논의
- 러시아,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항공편 운항 재개
- 네덜란드 APM 터미널 社, 러시아 항만 전용 수출관리시스템 구축

주요 통계

- 2020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-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-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



러 페르보마이스키 항만. 온습도 센서 부착한 '냉'컨 최초 처리

- 글로나스(GLONASS) 사(社)와 예브로십(Evrosib)사(社)^{a)}는 26.9톤 규모의 청어가 적재된 리퍼컨테이너를 블라디보스톡의 페르보마이스키 항에서 노보시비르스크(Novosibirsk)로 운송하는 시범사업을 추진
- 이 프로젝트는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글로나스(GLONASS) 시스템과 연계한 온도 통제장치를 컨테이너 장착해 온습도를 센서로 조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
- 글로나스 시스템이란,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GPS로 볼 수 있음
- 이 사업과 관련해 2019년 예브로십 사(社)는 글로나스 사(社) 및 포지트론(Pozitron)사(社)^{a)}와 온도제어 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을 체결했음
- 운송기술지원은 러시아 기업인 ITC(Intellectual Transport System)사(社)가 담당하고 있음
- 이번 시범사업은 연해주(블라디보스톡)에서 시베리아 서부(노보시비르스크)까지 신선화물의 품질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자하로프 콘드라셰프(Zaharoc Kondrashev) ITC 대표는 식품뿐 만 아니라 의약품, 화훼, 관상용 식물 운송에도 이 시스템이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음
- 또한 ITC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, 러시아 자체 기술로 온도조절 제어 장치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- 더불어 온도조절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할 수 있게 될 경우, 검역당사자들이나 물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함
-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최종 소비자가 어플을 통해 신선제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수 있게 되기 때문임
- 블라디보스톡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콜드체인이 중요한 수산업 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임

- 2019년 블라디보스톡 항만은 약 36만 톤의 수산물을 처리했고,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% 증가한 수치임
- 특히 페르보마이스키 항만청은 '페르보마이스키 항만은 컨테이너 전용 항만으로 수산물 및 곡물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, 시범사업 이후 냉장·냉동 화물을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각 지방으로 운송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.'고 밝힘



그림. 온습도 센서가 장착된 리퍼 컨테이너

자료: https://customsforum.ru/news/business/eksperimenty-v-logistike-v-novosibirsk-otpravlen-konteyner-s - seldyu-osnashchennyy-glonass-554367.html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- a) 예브로십 사(社)는 신선화물 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며, 포지트론 사(社)는 산업기술 개발 기업임
- b) http://www.morvesti.ru/news/1679/84564/(검색일: 2020년 8월 2일 검색)
- c) https://customsforum.ru/news/business/eksperimenty-v-logistike-v-novosibirsk-otpravlen-k onteyner-s-seldyu-osnashchennyy-glonass-554367.html(검색일: 2020년 8월 2일 검색)
- d) https://vladivostok.sm.news/glonass-budet-derzhat-na-kontrole-temperaturu-skoroportyash hixsya-produktov-7935/(검색일: 2020년 8월 2일 검색)

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0일 만에 컨테이너 철송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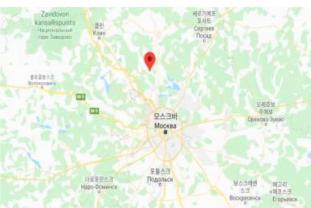
- 예브로십(Evrosib)사(社)는 블라디보스톡~모스크바 주 노선을 갖춘 정기 철 도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 노선은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므스 추르킨(Mys Churkin)역에서 모스크바에 위치한 벨르이 라스트 (TLC Bely Rast) 물류센터까지 연결되어 있음
- 이 노선이 개설되기 전까지 벨르이 라스트 물류센터는 노보시비르스크(Novosibirsk), 크라스노야르스크(Krasnoyarsk), 이르쿠츠크(Irkutsk)까지만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음
- 78개의 40피트 컨테이너를 적재한 시범 열차는 10일 만에 벨르이 라스트 물류센터에 도착했음
- 이번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로 매달 6회의 추가 운송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,
 매달 6회, 가을부터는 매달 8회 정기노선을 운영할 계획임

■ 올해 3분기에 예브로십 사(社)는 블라디보스톡~모스크바 정기노선을 매달 8회로 증편할 계획임

- 이 친(Lee Tsin) 벨르이 라스트 영업부장은 모스크바 외곽으로는 소비재를 운송할 계획이지 만, 반대 방향으로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
- 컨테이너 화물은 중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입되는 화물로 구성될 것임
- 이 노선이 개설되기 전까지 예브로십 사(社)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동북지역에 위치한 쿠파브나(Kupavna)역으로 운송함
- 또한 FESCO는 실리카트나야역(Silicatnaya),^{a),} 주식회사 트란스컨테이너(Transcontainer)사 (社)는 투츠코보역(Tuchkovo)^{a)}까지 운송함
- 니콜라이 니키틴(Nikolay Nikitin) 예브로십 사(社) 컨테이너 운송개발부 부장은 블라디보 스톡을 통한 복합운송서비스(수입)를 개발할 계획이며, 중국에서 모스크바 및 노보시비르스 크로 가는 방향으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
- 벨르이 라스트 물류센터까지는 매달 6회, 노보시비르스크 터미널까지는 매달 4회 운송할 계획임

그림. 벨르이 라스트 물류센터 전경(좌) 및 위치(우)





자료: https://russiaindustrialpark.ru/industrialnyy-park-belyy-rast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- a) 실리카트나야(Silicatnaya)역은 모스크바 노보포스콥스키 지역에, 투츠코보(Tuchkovo)역은 모스크바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음
- b) http://vch.ru/event/view.html?alias=vo_vladivostok_za_10_sutok(검색일: 2020년 8월 2일 검색)
- c) https://russiaindustrialpark.ru/industrialnyy-park-belyy-rast(검색일: 2020년 8월 2일 검색)

2020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으로 입항한 선박 수 증가

- 올해 상반기 사할린, 쿠릴, 캄차카 항만 물동량이 4% 증가한 1,575만 톤에 달했음^{a)}
 - 또한 2020년 상반기 사할린(Sakhalin), 쿠릴(Kuril), 캄차카(Kamchatka) 항만에 입항한 선 박 수는 작년 동기대비 8.6% 증가해 12.523척을 기록함
 - 연안 선박은 1만 1,735척으로 9.7% 증가한 반면, 국제항로 운항 선박 수는 78척으로 5.3% 감소했음
 - 네벨스키(Nevelskiy)항만은 3,837척으로 10% 증가했고, 포로나이스키(Poronaisky) 항만으로 입항한 선박 수는 459척으로 14.2% 증가했으며, 캄차카 항만로는 어선을 포함해 총 6.658척이 입항해 작년 동기 대비 13.9% 증가함

■ 모스칼보(Moskalvo) 항만으로는 총 145척이 입항해 339% 증가함^{a)}

- 이는 오호츠크해 석유가스개발단지로 인력을 수송하는 용도인 아르티카보르그(Arcticaborg) 선이 나빌(Nabil) 터미널로 입항했기 때문임
- 2019년 겨울시즌에는 헬리콥터로 인력을 수송한 반면, 올해에는 아르티카보르그 선을 통해 수송함

■ 샤흐툐르스키(Shakhtersky) 항만은 석탄전용 부두 인프라 개선 및 기술 장비 현대화를 통해 처리능력을 제고함^{a)}

- 샤프툐르스키로 입항한 선박 수는 56척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.1% 증가함
- 이 터미널은 싱가포르 회사인 Rocktree Logistics Pte Ltd.^{b)}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석탄처리능력을 제고하였음

■ 프리고로드노예(Prigorodnoye) 항만으로 입항한 선박 수는 연안 선박의 입항 감소로 4.6% 줄었음^{a)}

- 단, '사할린-2'의 가스인프라 시설의 기술적인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'사할린 에너지'가 수립한 2020년 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의 대규모 운송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음

■ 코르사코브스키(Korsakovskiy) 항만 및 홈스크(Kholmsk) 항만으로 입항한 선박 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감소했음

- 코르사코브스키 항만으로 입항한 선박 수는 629척으로 작년 동기 대비 3.4% 감소함
-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입항한 크루즈 선과 어선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임
- 홈스크 항만으로 입항한 선박 수는 564척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.3%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
- 이 같은 이유는 이전에는 샤흐테르스크(Shakhtersk)항만로 입항하는 외국 선박은 홈스크 항만에서 입항 절차를 밟았어야 했으나, 현재는 샤흐테르스크 항만에 입출항 사무소를 설치하여 홈스크 항만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(s.vostrikova1608@gmail.com/051-797-4776)

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vopreki_pandemii_za_pervoe_polugodie_vyroslo_chis lo_sudozahodov.html(검색일: 2020년 8월 2일 검색)

b) Rocktree Logistics Pte Ltd.는 환적 단지 운영 사업의 선두기업임

러시아 캄치카 주, 신규 수산단지 개발 방안 논의

- 캄차카 주 수산부는 지역 기업인, 어업인 연합, 연어생산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, 지역 수산단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음
 - 블라디미르 솔로도프(Vladimir Solodov) 캄차카 주지사 대행은 8월 15일까지 이 지역의 수 산단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음
 - 간담회에는 캄차카 수산업 종사 기업가, 어업인 연합회, 수출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 아 전국 어업인 협회가 전략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
 - 안드레이 즈데토벳스키(Andrey Zdetovetsky) 캄차카 지역 수산부 장관은 2010년에 구성된 기존 전략은 법적 모순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음
 - 특히, 캄차카주 지역총생산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% 수준으로, 안드레이 장관은 캄차카주 지역 경제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음. 그는 새로운 근로조건과 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음

그림. 캄차트카 수산물 가공공장





자료: http://integral-russia.ru/2018/08/09/krupnyj-pererabatyvayushhij-kompleks-zapushhen-na-territorii-oper ezhayushhego-razvitiya-kamchatka/

- 안드레이 즈데토벳스키 장관은 전략 문서를 통해 캄차카 지역의 자원 개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
 - '2035년까지 캄차카 지역 수산단지 개발 전략' 문서에는 북동항로를 포함한 물류 운송로 개선, 수출 기회 요소 평가, 신기술 도입, 선박 수리 개발, 산업 인력 개선 등 다양한 개발 전략을 포함할 예정임

- 특히 본 전략 개발을 위해 현직 어부들과 공동 작업을 준수하면서, 통계 및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러시아 해양수산부와 적절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

김현진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
(hyunjink24@gmail.com)

a) https://www.varpe.org/news/varpe_uchastvuet_v_razrabotke_strategii_razvitiya_rybnoy_otrasli _kamchatki/(2020년 8월 3일 검색)

b) https://www.kamgov.ru/news/na-kamcatke-razrabatyvaut-novuu-strategiu-po-razvitiu-rybno j-otrasli-32374(2020년 8월 3일 검색)

c) http://integral-russia.ru/2018/08/09/krupnyj-pererabatyvayushhij-kompleks-zapushhen-na-te rritorii-oper ezhayushhego-razvitiya-kamchatka/(2020년 8월 3일 검색)

러시아,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항공편 운항 재개

■ 러시아정부,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항공기 운행 금지 ^{a)b)}

-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난 3월 27일 국제선 정기 운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 시민들의 본국 귀환은 허용
-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해지며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모든 국내외 항공편 운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발표.
- 이 비행제한 조치는 러시아 국민의 본국 귀환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비행편의 전면 운항중단 조치로 외국인의 경우 자국 송환에 한정하여 별도의 문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자국으로 귀화이 가능
- 러시아 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발이 묶인 자국 국민이 대략 2만 5,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외체재중인 러시아 국민들의 임시 체재비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에 미화 650만 달러(50억 루 블) 예산을 별도로 배정



그림, 러시아 국제선 운항 중단

자료: https://www.themoscowtimes.com/2020/07/10/russia-will-begin-lifting-international-flight-restrictions -from-july-15-a70847

■ 제한적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운항 재개 ^{c)d)e)f)}

- 러시아 부총리는 몇몇 국가들과 국제선 운영 재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, 국제선 비행 재개가 가능한 조건은 10만 명당 40명 이상의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며,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환자 발생 증가폭이 1% 미만이며 현재 전염률이 1 미만이어야 국제선 항공편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음

-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러시아내 모든 항공편 운행이 중단한지 4개월여 만인 8월 1일 이스탄불을 출발한 터키 항공사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도착하며 국제선 항공편 운행 재개
- 러시아 항공 운송국(Federal Air Transport Agency)은 8월 1일부터 모스크바, 모스크바 근교, 상트페테르부르크, 로스토프나도누 지역에 한정하여 영국, 터키, 탄자니아 행 국제선을 재개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8월 10일부터는 안탈리아(Antalya), 보드룸(Bodrum), 달라만(Dalaman) 등 터키의 유명 휴양지로의 항공편도 재개할 계획
- 러시아 입국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검사결과는 3일 이내로 받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증명서를 휴대해야 입국이 가능하며, 만약 자국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면 러시아 입국 후 3일 이내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.
- 러시아 국영 통신사(TASS)에 따르면 아르한겔스크(Arkhangelsk) 지자체는 아르한겔스크-볼로그다(Vologda) 국내선 항공편을 정기적으로 운항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이 운항에 필 요한 재원은 아르한겔스크 지자체와 러시아 항공 운송국이 지원할 계획

이경호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klee88@kmi.re.kr/051-797-4942)

- a) 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health-coronavirus-russia-flights/russia-to-halt-all-flight s-at-midnight-on-friday-including-for-repatriation-idUSKBN21L1ZM (검색일: 2020년 8월 04 일)
- b) https://www.aa.com.tr/en/asia-pacific/covid-19-russia-stops-all-air-traffic-with-countries/1 780059 (검색일: 2020년 8월 04일)
- c) https://www.themoscowtimes.com/2020/07/10/russia-will-begin-lifting-international-flight-restrictions-from-july-15-a70847 (검색일: 2020년 8월 04일)
- d) https://tass.com/society/1182357 (검색일: 2020년 8월 04일)
- e) https://tass.com/society/1184719 (검색일: 2020년 8월 04일)
- f) https://tass.com/economy/1186189 (검색일: 2020년 8월 04일)

네덜란드 APM 터미널 社, 러시아 항만 전용 수출관리시스템 구축

- 투루흐탄니(Turukhtanny) 항이 러시아 최초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완전 전산화 시 스템 구축에 성공하였음⁽⁾
 -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독자적인 기술인 글로벌 포트(Global Port) 포털과 시 포트(Sea Port) 포털 소프트웨이 기술을 기반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들을 세관과 전산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, 이 시스템을 통해 운송업자들은 주문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세관으로부터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음
 - 이 같은 디지털 수출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운송업자, 해운회사, 관세청 등 모든 수출입에 관련된 사람들이 컨테이너 선적 및 양륙 단계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부차적인 승인절차 시간을 단축할 있게 되었음



그림. APM 터미널 디지털 수출관리시스템

자료: https://steelguru.com/logistic/apm-terminals-to-launch-fully-digital-export-management-system-in-russia/561777#

- 글로벌 포트(Global Ports)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운송·무역 회사로 네덜란드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회사인 APM 터미널(지분율 30.75%)과 러시아 현지회사인 델로(Delo, 지분율 30.75%)와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음
- 현재 글로벌 포트 사는 러시아 항만 전산화 사업의 대표 주자로 지속적으로 터미널 관리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지난 6년간 터미널 문서처리 속도 2.5배 향상시켰는데, 앞으로 해운회

사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부가 가치세 면세 적용에 필요한 문서를 전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

이경호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klee88@kmi.re.kr/051-797-4942)

a) https://steelguru.com/logistic/apm-terminals-to-launch-fully-digital-export-managemen t-system-in-russia/561777# (검색일: 2020년 8월 5일)

주요 통계



표. 2020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9/2020 증가율
극동지역	13.48 (+3.6%)	7.13 (+4.9%)	20.61	+4.1%
북극해	2.63 (-3.4%)	5.13(-6.4%)	7.76	-5.5%
발트해	9.68(-2.4%)	13.39(+6.2%)	23.6	+2.6%
아조프-흑해	7.92(+15.1%)	11.36 (+1.8%)	19.28	+6.6%
카스피해	0.25 (+41.7%)	0.29 (+3.0%)	0.54	+17.3%
합계	33.96(+4.2%)	37.3(+2.5%)	71.26	+3.2%

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베츠카야가반, 데 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얀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랴, 마하치칼라

소피아 연구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(051 - 797 - 4776)

- a) https://portnews.ru/news/297118/(검색일: 2020년 8월 10일)
- b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yanvar-aprel_vyros_na_3_7_do_280_13_mln_tonn.html(검색일: 2020년 8월 10일)

표.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톤)

	해:	외*	CIS	S**	 합계			
품목 	수출	수입	수출	수입	 수출	수입		
식료품 및 원자재	270,286.90	65,970.90	977.20	887.00	271,264.00	66,857.90		
광물 제품	1,171,075.50	21,265.40	23,702.10 55,389.00		1,194,777.60	76,654.50		
연료 및 에너지 제품	1,098,071.80	19,753.80	100.9		1,098,172.70	19,753.80		
생고무 및 화학 제품	3,067.20	49,619.60	481.40	543.50	3,548.70	50,163.10		
가 죽 원료, 모피 제품	734.1	941.30	0.6	85.1	734.6	1,026.30		
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85,237.30	8,688.90	318.60	171.4	85,555.90	8,860.40		
섬유,섬유 제품 및 신발	1,943.20	52,017.80	8.4	437.30	1,951.60	52,455.10		
금속 및 금속 제품	28,404.50	57,749.70	93.5	654.00	28,498.00	58,403.70		
기계류	6,482.10	286,525.50	519.40	10,415.20	7,001.50	296,940.70		
기타	51,537.70	32,613.60	80,675.30	134.7	132,213.10	32,748.20		
합계	2,716,840.30	595,146.50	106,877.40	68,717.20	2,823,717.70	663,863.70		

^{*}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소피아 연구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 (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(검색일: 2020년 8월 10일)

^{**}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표. 2020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(단위: 천 톤, 달러)

		해오			CIS**				합계				
품목 -	수출		수입		2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
냉동어	91,326	121,383.9	3,324	5,769.9	128	113.14	-	_	91,455	12,1497	3,324	5,769.9	
연어류	7,134	13,808.5	_	-	-	-	_	_	7,134	12,808. 5	_	_	
넙치	473	2,528.4	_	-	_	-	_	_	473	2,528.4	_	_	
가자미	842	666	-	-	-	-	-	_	842	666	-	-	
가자미류	1,976	1,700	-	-	-	-	-	-	1,976	1,700	-	-	
청어	18,798	11,576.5	-	-	108	87.1	-	-	18,906	11,663. 6	-	-	
대구	4,818	13,556.5	-	-	-	-	-	-	4,818	13,556. 5	-	-	
명태	45,766	46,590.1	_	-	80	26.1	_	_	45,786	46,616	_	_	
농어	39	109.6	-	-	-	-	-	-	39	109.6	-		
간, 곤이 (어란)	5,762	23,030.4	-	-	-	-	-	-	5,762	23,030. 4	-	-	
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등 생선부산물	699	1,319.7	-	-	-	-	-	-	699	1,319.7	-	-	
생선 필렛, 어육	7,176	20,905.9	91	341.9	-	-	-	-	7,207	20,974.7	91	341.9	
건어, 훈제, 염장, 어분	12	33	154	930.9	-	-	-	_	12	32.9	154	930.9	
갑각류	6,824	97,969.2	16	126.2	-	-	-	-	6,824	979,69.2	16	126.2	

게류	5,900	91,388.3	_	_	_	_	-	_	5,900	91,388. 3	-	_
조개류	1,250	2,719	_	-	_	_	-	_	1,250	2,719	-	-
가리비	626	1,104.3	_	_	-	-	_	_	626	1,104.3	_	_
오징어류, 문어류	550	1,461.8	75	355.1	-	-	-	-	550	1,461.8	75	355.1
수산 무척추 동물	780	2,339.9	-	-	-	_	-	-	780	2,339.9	-	-
해삼류	65	136.4	_	-	-	_	-	_	65	136.9	-	_
성게류	714	2,202.9	-	-	_	_	-	_	714	2,202.9	_	_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연구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 (051-797-4776)

참고자료

a) 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(검색일: 2020년 8월 10일)